

202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결과보고서

1. 사업 배경

□ 개요

- 사업명: 평화·통일을 위한 미술교육의 방향성 탐색: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 기관명: 미술대학(김형숙)

□ 추진 배경 및 목적

○ 연구 추진배경

-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 문항에 대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25.4%)’보다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34.5%)’를 2020년에 이어 1순위로 응답했다(통일부 통일교육원,2021). 이러한 데이터는 학생들에게 통일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변화하는 세대에 맞추어 미술교육 차원에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미술교육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외 연구에서는 각 나라의 전쟁, 갈등, 폭력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진 인지적, 심리적 회복에 예술이 사용되는 평화교육(peace education) 연구나 평화라는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진 커뮤니티 중심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Taylor,2005; Labor,2018; Evron,2007),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담아낼 수 있는 통일교육이나 활용할 수 있는 평화교육의 형태를 찾기 어려웠다. 또한, 국내의 기존 통일교육 연구에서도 미술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남·북한의 미술교육을 비교하거나 통일을 위한 미술의 역할에 대한 연구로, 평화·통일교육에서 미술교육이 어떠한 내용을 담아내고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한 자료가 아직 미흡함을 알 수 있다.
- 조영우(2019)는 통일교육원에서 『평화·통일 방향과 관점』을 제시한 이후에도 여전히 동질성을 강조하는 현상을 꼬집으며, 통일미술교육 연구 발전의 문제를 통합, 자료, 해석의 부재로 정리한다.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이 채택되고 방향이 설정되어도 여전히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미술이 다양한 형태

로 전개 및 활용되고 있음에도 미술교육 분야에서의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미술교육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주목하며, 미술의 도구적 측면이 아닌, 미술교육 자체적인 평화·통일교육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평화·통일 미술교육’이라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 연구 목적 및 연구의 중요성

- 김상범 외(2020)의 연구에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정립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학교 급별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분석했는데, 미술교과에서는 초등학교 성취기준 29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3개 모두에서 연계 성취기준 미보유 과목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 미술교과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과인데,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서술되어있는 ‘소통, 이해, 가치, 존중, 발전’과 같은 표현들은 평화·통일교육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김상범 외(2020) 또한 미술교과에서 연계점은 찾지 못했어도, 오히려 정치나 이념 문제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고, 남북의 문화교류 차원에서도 다양한 분야와 연계를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미술을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가능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분석의 기준을 달리하면 학교 평화·통일교육과 2015개정 미술교과 사이의 연계성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평화·통일 미술교육’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초단계로, 이에 대한 개념 정립을 목적으로 둔다.
-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현 평화·통일교육의 연구동향이 핵심역량 함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비해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위해 미술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를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학교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한다면 미술교과 내에서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함께 미래의 교육과정 개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은 각 연구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김진환(2021)은 한국사회 구성원이 통일을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바라보게 해주며, 한반도 평화가 결코 통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 구성원이 통일에 그치지 않고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제시했으며, 오기성(2019)은 평화·통일교육이 갖는 이상의 가치론적 측면, 인식론적 측면, 범주론적 측면을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을 평화에 기반하여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삶을 일구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관 및 태도, 실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 정리하였고, 황인표

(2009)는 평화 지향적 학교 통일교육에 대해 개인의 삶에서부터 국제 질서로서의 평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 과정에서 내면화하여 실천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길러서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이 밖에도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 선행 연구들도 많지만, 미술교육의 측면에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을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개념을 도출함으로써 지금까지 평화·통일교육에서 미술이 교과통합의 차원에서만 활용되었던 점을 반성하고, 미술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향성을 고찰하는데 중요성이 있다.

2. 사업 내용

□ 사업 추진 내용

○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개념과 핵심역량 정립

-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개념과 핵심역량을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표 1>, <표 2>와 같이 3차례의 설문을 통해 재진술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개념은 ‘상호존중의 태도로 남북한의 시각문화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통하며, 미술활동을 통해 비평화적 상황을 성찰하고 평화를 내면화하여 통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돕는 교육’으로 정의되었다. 또한, 평화·통일을 위한 미술교육의 방향성을 도출한 네 가지 핵심역량인 ‘평화 감수성 역량, 남북한 문화 이해 (역량, 창의적 한반도 소통 역량, 자기 주도적 평화 표현 역량)’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표 1>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개념 설문결과 분석

| | 1차 도출안 | 재진술 의견 | 2차 도출안 |
|------|--|---|--|
| 개념 | 다양한 시각문화를 이해하고 시각이미지를 통해 소통하며, 비평화적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미술활동을 통해 평화를 표현하는 교육 | 한반도로 범위를 좁힐 것. 태도가 전제되어야 함 비평화적/평화적 상황을 구분하고 평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 | 상호존중의 태도로 남북한의 시각문화를 이해하고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통하며, 미술활동을 통해 비평화적 상황을 성찰하고 평화를 내면화하여 통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돕는 교육 |
| 평균 | 4 | | 4.38 |
| 분산 | 0.5 | 통일 이전과 이후 모두를 포함한 교육이어야 함. | 0.33 |
| 표준편차 | 0.71 | 미술교육이 단순히 표현을 위한 교육은 아님 | 0.58 |
| 안정도 | 0.18 | | 0.13 |
| CVR | 0.5 | ... | 0.9 |

<표 2>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핵심역량 도출 과정

| 용어 | 의미 |
|----|----|
|----|----|

| | |
|-----------|--|
| 평화적 상상 역량 | 비평화적 요소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평화의 가치를 회복하는 능력 |
| 문화 이해 역량 | 남북한의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공통된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능력 |
| 창의적 소통 역량 | 시각 정보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상황을 탐구하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 주도적 표현 역량 | 미술 활동을 통해 평화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통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

| | |
|---|--|
| 2차 델파이 조사(삭제, 변경, 추가 등의 재진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상이 역량이 되기에는 모호, 미술교과의 정서적 측면이 강조 기존 미술교과의 역량과 차이, 상호존중과 배려의 태도, 공동체의 발전을 강조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 비평화적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 | |
| 남북한 문화 이해 역량 | 상호존중의 태도로 남북한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더 나은 한반도를 위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능력 |
| 창의적 한반도 소통 역량 | 시각 정보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상황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비평화적 상황을 조정하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 주도적 평화 표현 역량 | 미술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주도적으로 평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능력 |

| | |
|--|--|
| 3차 델파이 조사(최종안 적절성 평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이미지를 내면화하기보다 가치에 공감하고 내면화 비평화적 상황을 조정하는 것보다 문제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해결 타인과 협력하는 내용이 소통과 더 어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수정 필요 | |
| 남북한 문화 이해 역량 | 상호존중의 태도로 남북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더 나은 한반도를 위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능력 |
| 창의적 한반도 소통 역량 | 시각 정보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상황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비평화적 상황을 타인과 협력하여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
| 자기 주도적 평화 표현 역량 | 미술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평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능력 |

○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및 방향성 탐색

-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적용을 위해 네 가지 핵심역량이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미술교육의 실천 방향을 탐색하였다.

□ 일정별 추진 사항

| 일 정 | 추진 내용 |
|-----------------|-------------------------|
| 2022.04-2022.08 | 델파이조사 실시 및 연구자료 분석 |
| 2022.09-2022.11 | 통일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준비 |
| 2022.12-2022.01 | 논문 게재 및 통일기반구축사업 보고서 제출 |

3. 사업 성과

□ 사업 성과

- 한국미술교육학회 논문 게재
 - 미술교육논총 2022 제 26권 4호 134-164 게재
- 2022 통일기반구축사업 연합 학술대회
 - 2022년 11월 17일 학술대회 참가
-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네 가지 핵심역량이 주는 함의
 - 평화·통일 미술교육에서 평화감수성은 ‘일상에서 평화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으로 단순히 평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관찰을 통해 평화를 이미지화하여 구체적으로 체현하도록 한다. 통일과 평화를 멀리서 찾지 않고, 나의 일상에서 추구함으로써 평화를 내면화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슬기(2019)는 탈분단 담론 중심의 사고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논의한다. 통일 그 자체만을 이야기했던 것이 오히려 통일 문제에 무관심과 반발을 초래했기 때문에 일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폭력을 드러냄으로서 평화를 인식하고 통일을 나의 문제로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 소극적 폭력의 비평화적 상황은 우리 주변과 학교 현장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기에 일상에서 평화를 되찾는 일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평화 또는 비평화의 이미지를 발견하는 훈련, 그 이미지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통해 비로소 평화통일의 의미를 자신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미술 교육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에서 한 교사는 분단의 상처 회복과 비평화적 상황을 평화적 상황으로 이끄는 치유의 힘이 반영되어야 하며, 미술교육의 정서적 회복능력을 강조했다. 평화·통일 미술교육에서 평화 감수성은 비평화적 요소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평화의 가치를 공감하는데서 시작한다. 타 교과에서 다루는 통일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체험한 상황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미술교과에서 다룬다면 정서적인 측면에서 공감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시각이미지는 관계적 측면에서도 고통에 공감하기 위해 중요하다. 상상력은 타자와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하고 창조할 수 있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복돋는다(반상진,2019). 고미숙(2005)은 이미지 자체가 감수성을 위한 실제 대상은 아니지만, 고통 받는 공동체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 마음속에 그리는 것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미술은 정서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시각이미지를 그려보는 미술교육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에 대한 내면화가 실현될 수 있다. Collinge(1997)는 상상력의 발달에 중점을 두는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교육에서 예술교육이 중요함을 밝힌다. 분단 이후 한반도에는 단 한 번도 평화가 정착된 적이 없기 때문에 평화를 상상해봐야 경험할 수 있다(정옥식,2021). 상상에는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 미적 표현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상력을 활용하여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술교육의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평화 마을 만들기와 같은 추상적인 형태의 상상이나 통일을 국내 여행지가 늘어난다고 상상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 통일과 관련된 상상의 영역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미술교육에서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고재열(2021)의 ‘미리 써본 북한 여행 기획서’와 같은 도서는 통일을 부담스럽고 번잡한 일이라 여기는 MZ세대에게 미지의 여행지를 제안하면서 통일의 관점을 바꾸려 시도한다. 김일성 광장에서 대동강맥주로 치맥 파티를 하는 일, 유라시아와 환동해가 유기적으로 네트워킹 된다면 어떠할지 등 통일을 상상함으로써 통일과 북한, 평화에 대한 이미지에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통일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이미지화 할 때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증가한다는 입장이다.

- 미술 활동이 갖고 있는 개인의 의미화와 집단의 정체성 회복은 미술의 본질과 관련이 있다.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이질적인 시각문화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의 시각이미지에 대한 소양을 키움으로써 관계의 흐름에서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 전문가 응답에는 ‘미술은 보다 큰 영역인 문화 안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회적 문제가 문화의 관점에서 해결될 것’,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이미지가 아닌 문화적 이미지를 강조하며 그 안에서 차이를 이해하면서도 공유할 수 있는 지점들을 연결한다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정주진(2019)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2018년 실시했던 조사에서 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예로 들며 자주 만나고 더 알게 될수록 증오와 두려움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남북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그 안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고민해보는 데서 평화·통일은 시작된다는 것이다. 남북한 문화 이해 역량은 통일이라는 상황보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태도에 집중하게 한다. 황인표(2009)는 평화·통일이 남북이 상호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통일이라 말한다. 남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Congdon(1993)에 의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한다. 북한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관용과 존중의 태도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바른 인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한 미술작품 감상법을 미술교육에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델파이조사의 한 전문가는 탈북 작가들의 작품을 가져와서 제작 배경에 대해 토의를 하거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창작 집단인 만수대 창작소에 대해 함께 알아보며 북한에서 미술을 어떻게 간주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방향을 제안한다. 북한에서도 예술은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미술교육이 평화·통일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주체사상의 도구로 예술이 활용되는 부분에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만큼 예술이 주는 힘과 가능성을 북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미술교육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정혜연(2020)의 북한 미술교과서에 대한 연구나 김가영, 김효정(2019)의 남북한 미술 교과서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교과서에서 활용하는 미술작품 도판이 매우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미술 작품이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의도한 미술작품 도판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의 문화를 수용하며 강점을 배워나가는 일은 한반도의 문화적 발전과 더 나은 한반도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Evron(2007)에 의하면 예술 커리큘럼의 일부로 평화의 문제를 가져옴으로 ‘그들’을 구분하는 이분법을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사용함으로써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의 미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갈수록 예술이 주는 힘을 이해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서로 소통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Congdon(1993)은 또한 미술작품 감상을 통해 다양성을 수용하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역량이 창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미술교육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통일의 과정과 방식에 대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접근 방향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미술은 비언어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 통일은 정치, 역사,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야기되어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의 토론이 아닌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통일의 과정 속에서 생겨날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집단화나 이어그리기로 표현하면서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통일 언어를 보다 쉽게 접근하게 하는 미술은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이 된다. 언어가 아닌 시각이미지를 통해 더 창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이러한 접근이 통일에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한다. 또한, 배경지식이나 정치성향과 무관하게 학생들이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창의적 한반도 소통 능력은 통일을 단순히 두 나라가 합쳐지는 개념보다는 소통의 관계로 이해하게 한다. 평화적인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하면서 통일을 거대한 사회나 정치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다 관계로 접근하게 하는 것이다. 김선자, 주우철(2019)은 궁극적으로 통일이 사람 사이의 통일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일의 당위성을 일깨워주는 방식을 넘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분열과 경쟁을 지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하는 대안적인 연대의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전체보다 북한 사람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추어볼 때 거기서부터 소통이 시작될 수 있다. 한 명의 북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가 자라온 문화적 환경을 살피고 어떻게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데서 새로운 관계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 미술활동 과정은 이러한 타자에 대한 이해, 협력과 연대, 소통과 공존, 평화의 의미와 가치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돕는다(김효희, 2022). 김효희(2022)에 의하면, 추상적 사고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미술 창작과정은 많은 가능성과 다양한 실험 그리고 구체적 실행 전략과 도전을 만들어낸다. 창작의 과정 속에서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평화·통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화·통일과 관련된 공공미술을 찾아 감상하는 것, 그리고 감상을 넘어 직접 구상하고 발전시켜보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력이 신장될 수 있다. 이호진(2017)은 DMZ 관련 문화예술 사업들과 사회 융합을 위한 공공 미술의 성공사례들을 예시로 소개하며 DMZ의 공공적 활용 가능성을 제안한다. DMZ는 분쟁의 상징적 지역으로서 공공성 있는 예술 작업을 실현했을 때 공동체 문화 형성의 파급력이 극대화된 장소라며, DMZ를 활용한 공공 미술은 세대 간 지역 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올바른 예술형태의 방향성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호진, 2017). 이와 같이 평화·통일 미술교육은 타인과 협력하여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의 시각이미지를 통한 소통은 미술교육의 비언어적 속성을 살리면서도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미술교육에서 강조하는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와 미디어 리터

러시(media literacy) 같은 시각 정보를 읽어내는 문해력은 이미지 왜곡이 쉬운 북한의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미디어가 보여주는 북한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정보를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미술교육은 시각 정보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상황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분석력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시각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데서 나아가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보를 시각화하거나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매개한다.

- 미술교육은 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통일의 이슈는 학생들의 관심영역에서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으며 통일교육은 재미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통일을 떠올리며 느끼는 감정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에 38.1%에 해당하는 1순위로 선택했으며, 이 결과는 2020년 37.4%에 해당하는 수치에 비해 더 오른 경향을 보인다(통일부 통일교육원,2021). 진희관 외(2018)는 통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명분론이 피곤함, 무관심, 괴리감이라는 한계를 가져온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에는 미술교과에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표현을 강조하며, 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이 아닌 다양한 반론과 가능성을 고려한 역량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교육을 미술이라는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표현 가능한 도구로 교육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술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주도적으로 평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 주도적 평화 표현 역량’은 자유로운 표현과 자기 주도적 참여를 중요한 의미로 담고 있다.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미술교육에서 중요한 ‘표현’ 역량을 살려 미술을 도구로써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미술교육의 전문성을 살린 프로그램의 개발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효희(2022)는 평화·통일교육으로서의 미술 수업실천에 관한 연구가 다소 선언적 수준이어서 현장에 적극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의 교사들은 통일교육의 혼란스러운 방향성과 당위성 중심의 한계성을 경험하고 있고, 미술교과 수업실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 지적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22)에서는 ‘평화통일교육 수업사례 나눔’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교육주간에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시해주는데,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과 흐름을 같이하는 활동이 많음에도 미술교과에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술교육 분야 자체적으로 평화·통일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희정(2018)은 학생 중심의 통일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흥미

와 관심을 증진하는 다양한 방법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 영화, 드라마, 예술,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매체 활용한 에듀테인먼트형 통일교육을 강조한다.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통일교육에서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은 강의, 설명식 교육(81.1%), 동영상 시청(77.5%)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통일교육 실행의 어려움으로 교육 자료의 부족이 1순위로 꼽혔다. 새로운 시각은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21). 즉, 더 풍부한 자료와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술활동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나 전시 프로젝트와 같은 미술의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에서 전시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단순한 전시 감상을 넘어 학생들의 삶에 체현을 도울 수 있다. 특히,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기억을 찾아서’와 인천 통일관의 ‘고향의 봄날’과 같은 북한의 여러 도시를 가상으로 재현한 전시들은 평양, 개성, 해주, 사리원, 청진, 함흥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남북통합문화센터의 통합문화체험관에는 통일 이후에 주고받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북한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전시가 기획되어 있으며 특히 VR을 활용한 여러 가지 체험과 게임이 준비되어있는데, 이 시설들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평화·통일 미술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핵심역량과 미술교과의 연계성 분석

- ‘평화감수성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평화 감수성의 ‘평화 이미지 상상’ 구성 요소에서 ‘연상, 상상, 자신의 생활과 관련, 다양한 발상, 자신과 주변’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 성취기준들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초등 과정부터 중등 과정까지 전 공통교육과정에 걸쳐 일상에서 이미지를 찾고 상상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미술교과에서 돕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화의 이미지를 일상에서 발견하고 상상하게 하는 방향으로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연구가 개발되면 미술교과의 강점을 살릴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에 반해, ‘평화/비평화 민감성’이나 ‘가치 공감 내면화’의 요소들을 찾기 어려워 미술교육의 또 다른 강점인 정서적인 측면을 교육과정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준들이 더 제시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는 성취기준과 같은 흐름으로 ‘학습자의 삶에서 자유롭게 떠올리도록 하는 연상, 상상, 자신과 주변의 관계’ 같은 ‘평화 이미지 상상’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다. 또한, 성취기준에는 없었지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을 관찰하고 이미지를 발견하도록 지도하는 데서 공감의 요

소를 찾을 수 있었다. 평화나 통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가 미술교과에 사용되기에는 관련된 단원이 없어 어려울 수 있으나 ‘가치’에 대한 고민과 ‘공감’은 미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통일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내용들이 미술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 ‘남북한 문화 이해 역량’과 관련된 성취기준에는 ‘작품을 소중히 다루는 올바른 태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 ‘다양한 분야의 미술 작품과 미술가들에 관심’, ‘우리나라 전통 미술의 특징’, ‘시대적 배경과 관련’,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알게 하는 내용들이 상호존중, 문화 차이 이해, 문화 가치 발견의 요소들이 해당하며,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다문화교육이나 맥락을 이해하며 감상해야 한다는 미술교육의 비교적 최근 흐름들의 영향을 받아 미술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학습 방향 또한 ‘서로의 작품’, ‘다양한 시대, 지역, 사회적 배경’, ‘다양한 분야의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 ‘전통 미술의 특징을 이해’,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과 같은 내용에서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구성요소들이 드러났다. 하지만, 세계시민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전을 꾀할 수 있어야 하는 ‘더 나은 한반도’를 고민하는 요소는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 모두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한반도’라는 용어의 사용은 없더라도 미술교육을 통해 다양한 시각문화의 이해하면 남북한의 관계에도 더 나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발전적 요소의 제시 필요성이 있다. 김형숙(2018)은 미술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연구에서 미술교과는 시각적 소통을 근본으로 하여 세계적인 쟁점에 대해 추상적인 이해 수준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주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고 강조한다. 미술활동을 통한 평화라는 가치에 대한 이해는 통일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과에서 공동체성 신장을 목표로 두는 교육과정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창의적 한반도 소통 역량’에서는 ‘시각정보 활용’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객관적인 시각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 ‘비판적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미흡했다. ‘사진, 영상,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 ‘마크, 표지판, 픽토그램, 포스터, 광고 등의 시각 이미지’, ‘정보를 수집하고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표현’, ‘이미지 전달 방식’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제시하며 이 매체들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이 생겨나고 미디어에서는 무한한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비주얼 리터러시’와 같은 객관성을 바탕으로 시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조되고 있는 데에 비해,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 모두에서 비판, 해석, 반성, 판단, 성찰, 통제 등의 단어 사용은 찾기 어려웠다.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미술교과의 강점이지만, 배

경과 맥락을 파악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 또한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관련 기준과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각적 소통 능력’과 ‘창의융합능력’과 같은 미술과 핵심역량이 강조되는 데 비해, 소통과 융합 같은 단어들의 사용이 없었다. 교수-학습 방법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지도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으나 성취기준에는 문제해결력을 다루는 내용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비판적 해석력과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 ‘자기 주도적 평화 표현 역량’과 관련해서는 미술과 교육과정의 표현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방법과 과정에 대한 성취기준들이 제시되어있다. 실제 학교 미술교육 현장에서 표현 영역이 주로 다루어지는 만큼 ‘미술활동’과 ‘자유로운 표현’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미술과 핵심역량에서도 중요시하는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과 관련하여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주도성, 주체성, 참여와 실천 같은 단어들이 성취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준으로서 추가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표현 방법과 과정’, ‘표현 주제로 발전’, ‘표현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과 같은 미술활동의 내용과 ‘허용적인 수업 분위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는 자유로운 표현의 내용은 많았지만, 자기 주도적 참여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교수-학습 방법만이 초등 체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오덕열(2019)은 평화통일교육에서 통일에 관한 생각과 평화의 원리 등을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가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평화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통일에 대해 고민하는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은 추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 관련분야 기여도

○ 미술교육으로서의 평화·통일교육 연구 토대 마련

-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핵심역량은 현 미술교과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지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평화·통일과 미술교육 양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방향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연관지어 상상해내는 미술과의 장점을 살리되, 체험과 감상 영역에서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가

치가 내면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미술은 세계적 쟁점의 이해를 미술의 감정이입과 공감적 성격을 토대로 개인적 관심으로 내면화하여 실천에 이를 수 있게 한다(김형숙,2018). 특히, 평화가 무엇인지 상상해보는 연습은 평화적 상황과 비평화적 상황을 구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는데 의미가 있다. 미술교과에서 문화이해 역량을 길러 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 나아가 공동체와 다양한 시각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가능해진다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참여적 시사점을 반영하여 공동체 발전을 위한 실천적 구성요소나 세계시민성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이 더 많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도 파악하였다. 또한, 시각정보를 활용하여 시각적 소통을 활발하게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비판적 해석력이 강조되어야 함도 본 연구를 통해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과 생각이 표현되지 않더라도 자기 주도성이 갖추어진다면 계속해서 가치관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평화의 가치가 내면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을 키울 수 있도록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의 확보가 요구된다.

○ 2022개정 교육과정에 평화·통일 미술교육 기초자료 제공

-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인재상의 변화에 대한 내용보다 제도의 변화에 더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과정정책과, 2021). 역량을 중요시하는 교육과정의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키워드인 일상, 이해, 소통, 표현 등의 요소들이 발표된 총론에도 여러 차례 사용되는 것을 보아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핵심역량 키워드들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맞춤교육으로 진로와 적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확대되어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비판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핵심역량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교육과정을 통해 평화·통일 미술교육이 더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미술교육의 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술가들이 평화통일을 위한 작품 활동과 전시를 위한 토대마련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연구하는 여러 사업들이 인문, 사회, 자연과학등과 연관되어 오면서 많은 성과를 내어온 것은 괄목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토대를 보다 다차원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예술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술분야에서 미술가들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창작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본교 연구소에서 파악할 수 있다면, 앞으로 비무장지대에 관한 연구를 시각예술(미술) 분야로 확장해서 지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장은 본 연구소가 지향하는 사업을 보다 다층적으로 일반인과 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자체평가 및 건의사항

□ 사업평가

○ 사업의 적절성

- 사업의 목적이 평화 통일 미술교육의 개념을 확립하고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이를 미술교육의 맥락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함.
-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과제의 구성 및 진행은 미술교육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한 연구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함.

○ 사업의 효율성

- 이 사업은 우리나라 미술교육 분야에 평화통일에 관한 미술교육의 실천과 이론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2022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고 집필되는 미술교과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 사업의 영향력

- 이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미술교육이 본질주의적 맥락 안에 머무는 것을 벗어나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과 주제를 생산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음.
- 미술은 ‘시각언어’를 통해 인간과 소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사업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위해서 시각언어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음.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미술문화의 측면에서도 시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사업의 발전가능성

- 이 사업은 미술교육분야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많은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많은 연구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봄.
- 미술문화, 및 교육 분야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방법론을 계속 발굴하는데 본 사업이 기여할 것임.

□ 미흡한 점(한계) 및 개선(보완)할 점

- 본 사업의 한계는 미술교육분야에서 선행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이며,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음.

□ 향후 계획

- 향후에 본 사업은 미술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미술문화의 차원에서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 비무장지대 부근에서 작업하고 활동하는 미술가들을 발굴하여, 그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하는 다년간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봄.
- 본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 미래 만들기, 새로운 시도와 과제> 라는 학술대회가 참으로 긍정적으로 보여 지는데, 이러한 학술대회에 시각예술분야에서 시각예술가들의 작업과 활동에 대한 논의가 들어간다면 학술대회가 보다 흥미로워질 것으로 기대함.

□ 건의사항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유연함이 필요함.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전공분야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본 연구소는 지원해야할 필요 있음.
- 연구수당이 제한되어 있는데, 사업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 있음.
- 운임비로 택시비, 주유비가 해당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본 사업이 <논문>으로 최종결과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미술가들의 창작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본 연구소가 지향하는 연구의 사회적 확산과 파급력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6. 성과 관련 지표

대표 사업 실적

- 한국미술교육학회 논문 게재
- 미술교육논총 2022 제 26권 4호 134-164.

성과 자율 지표

- 사업 시작일 (2022년 4월) 기준 2년 이내 사사표기 된 논문 게재 1건
- 2022 통일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2022년 11월)

결과보고서 요약

| | | | |
|--------------|------------------------------------|------------|-----------|
| 사업기관 | 미술대학 | | |
| 사업명 | 평화·통일을 위한 미술교육의 방향성 탐색: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 | |
| 사업책임자 | 성명 | 소속 | 직위 |
| | 김형숙 | 미술대학 동양화과 | 교수 |
| 사업기간 | 2022.4.~2023.1.31 | 사업비 | |

1. 사업 목적

-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개념을 확립하고 핵심역량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간 진행되어 온 평화·통일교육을 미술교육의 맥락 안에서 논의한다. 학교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및 각 통일교육 기관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미술교육의 한 분야로써 평화·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 사업 내용

- 평화·통일을 위한 미술교육의 방향성을 ‘평화 감수성 역량, 남북한 문화 이해 역량, 창의적 한반도 소통 역량, 자기 주도적 평화 표현 역량’의 네 가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적용을 위해 네 가지 핵심역량이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미술교육의 실천 방향을 탐색하였다.

3. 사업 성과

- 평화·통일 미술교육은 일상에서 평화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평화의 가치에 공감하고 내면화할 수 있게 한다. 통일을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아닌 문화로 접근하고, 비주얼/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 북한과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도록 돕는다. 또한, 미술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전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도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끈다. 평화·통일 미술교육의 핵심역량과 2015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연계 정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는 미술교육의 기여 가능성을 확인하는 지점이 되었다.